

보성, 농촌진흥사업 본격 추진

산학협동심의회의서 73개소 선정
신소득 작목 도입·자원 발굴 등
41개 사업 41억8,000만원 투입

보성군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진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보성군에서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은 ▲신소득 작목 도입 ▲스마트 농업기술 ▲기

후변화 대응 작목 육성 ▲농가 경영 개선 ▲미래 농업 인력 육성 ▲농촌자원 발굴 등 총 7개 분야 41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1억 8,000만 원이다.

보성군은 최근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73개소를 선정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시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요령 등 사전 교육을 이수한 후 사업에 착수한다. 미신청 사업은 재공고 후 심의회를 통해 사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농촌 진흥 신기술보급사업을 현장에 보급하고 확산해 고품질 농·특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판매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해 지역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기후변화에 따른 효율적 농업을 위해 ▲벼 병해충 생력 방제 모판 관주 처리 지원 ▲유망작목 아열대 과수 단지 육성 시범 사업 ▲2기 작용 가을 감자 신품종 현장 보급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정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 사업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 실습 교육 등을 통해 신규 및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에도 힘쓰고 있다. /보성=백종두 기자



고흥군이 최근 군청 팔영산홀에서 재단법인 화이트타이거즈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 강화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고흥군 제공

여수미래콘텐츠진흥협회 공식 출범

호남권 최초 민간 조직

콘텐츠 발굴과 진흥을 위해 호남권 최초로 민간 차원의 여수미래콘텐츠진흥협회가 최근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일 여수미래콘텐츠진흥협회에 따르면 이상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미래 콘텐츠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과 개발,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콘텐츠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나아가 콘텐츠 활성화 기틀을 마련해 지역의 관련 산업 육성에 한 발 앞선 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 경제, 문화, 관광, 농수축산 등 주요 부문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여수미래콘텐츠진흥협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제 콘텐츠는 문화의 영역을 넘어 서서 세상과의 소통언어이자 혁신 성장을 이끄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뒤처진 콘텐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AI와 챗GPT, 메타버스 등과 융합된 미래 콘텐츠 발굴과 전문가 양성 등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실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콘텐츠 발굴과 전문가 양성, 이를 융합한 다양한 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제한 뒤 “지역 기업의 참여는 콘텐츠 사업 추진과 크리에이터 육성 및 활동 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여수미래콘텐츠진흥협회는 섬 콘텐츠 개발, e-스포츠, 드론대회 유치, 스토리텔링 개발, 그리고 지역의 수산과 농업 등 1차산업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관광·레저 분야 등에 AI기술과 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장기적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과 연계한 탄소중립 콘텐츠 등으로 지역산업 기반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도 갖고 있다. 특히 오는 2026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대비해 전문가 집단의 노하우 공유와 업그레이드된 미래지향적 콘텐츠 구축을 통해 지자체와 성공개최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상철 회장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 흐름에 발맞춰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들이 각광받을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과 홍보콘텐츠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여수는 물론 넓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눈길과 성원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놀러와 화순팍”...리뉴얼 오픈 기념 이벤트

최대 30% 할인·적립금 등

화순군이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팍’을 리뉴얼 정식 오픈하며 할인과 함께 대형 이벤트 ‘놀러와 화순팍’을 추진한다.

화순군은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함께 온라인 판로 확장을 통한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팍’을 개편했다.

지난달 24일 화순팍 시스템 재구축을 완료하고 2주간 사범테스트 기간을 거쳐, 지난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27일간 화순팍의 온라인 집들이인 ‘놀러와 화순팍’ 이벤트를 추진한다.

‘놀러와 화순팍’ 행사는 할인 이벤트, 신규 가입 이벤트, 황금열쇠 이벤트, 애플시 이벤트를 통해 최대 30% 할인 쿠폰 및 최대 5,000원 적립금을 지급한다. 할인 쿠폰은 계정당 1회 발급되며 전상품 20% 최대 2만원까지 할인된다. 더불어 황금열쇠 이벤트를 통해 10% 추가할인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할인 이벤트 외에도, ▲퀴즈 이벤트 ▲리뷰 이벤트 ▲SNS 공유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등 최대 2만 원 상당의 다양하고 풍성한 사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순=이종백 기자

순천만정원박람회 입장권 사전구매액 총 50억 돌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오는 4월 1일 개막하는 정원박람회 입장권 사전 구매액이 50억원을 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기준 수익금은 입장권 50억8,000만원, 후원금 7억원, 기부금 15억4,400만원 등 73억 2,400만원이다.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 기업체, 향우회, 시민단체, 개인 등 입장권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 조직위는 오는 31일까지 박람회 입장권을 정상가의 최대 20%까지 할인하는 사전예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순천=박경식 기자

고흥-화이트타이거즈, 사회공헌 강화 맞손

5천만원 상당 방호복 기증도

고흥군은 최근 군청 팔영산홀에서 재단법인 화이트타이거즈(대표 이종선)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 강화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화이트타이거즈는 국내 사회공헌, 환경부와 MOU 협력, 국가 IOC 및 스포츠 행사 홍보,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각종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흥군민의 보건 증진을 위한 교류 ▲고흥군 사회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 ▲고흥군을 위한 홍보 활동 협력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활동 등을 내용으로 양 기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화이트타이거즈는 협약 후 고흥군 축산 농가를 위해 5,000만원 상당의 방호복 2,500벌을 기증하고 군민 보건증진과 지역 홍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약속했다.

화이트타이거즈 이종선 대표는 “이번 협약과 방호복 기증은 시작으로 고흥군 사회공헌 강화 및 농수축산물 홍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재)화이트타이거즈에서 기증해준 방호복은 한우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건위생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있는 교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고흥=진중현 기자



광양시가 광양매화축제 기간 동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광양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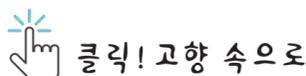
광양, 매화축제 기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광양시는 4년 만에 열린 시 대표 축제인 광양매화축제 기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축제장을 방문하는 상춘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축제 개막일인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홍보부스를 운영해 ‘10만원을 기부 시 13만원 혜택’이라는 문구를 게시한 배너와 현

수막을 설치하고 리플렛을 비치해 제도 홍보에 앞장섰다.

홍보부스에서는 관광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를 설명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 제공 등 기부자 혜택을 설명해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우성진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광양왕족발보쌈, 취약계층에 후원품

광양시 광양읍 광양왕족발보쌈(대표 허미옥)이 최근 광양읍사무소에서 후원 품목 족발보쌈 반찬세트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종호 광양읍장을 비롯한 5명이 참석했으며, 후원 품목은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이번 후원 품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자 왕족발보쌈 반찬세트로 기탁됐으며, 광양읍 내 저소득층 6가구에 매월 1회 전달할 예정이다.

허미옥 광양왕족발보쌈 대표는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이웃의 정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아성제약 이선창씨, 곡성군에 고향기부금

곡성군은 아성제약 이선창 씨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선창 씨는 곡성군 곡성읍 출신으로 재광곡성군향우회 활동을 비롯해 고향 곡성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평소 도시와 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이번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하게 됐

다. 또한 기부금을 농촌 유학이나 소외 계층 복지 등에 사용하겠다는 곡성군의 목표에 공감한 것도 기부를 하게 된 동기가 됐다.

이 씨는 “저는 비록 타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기부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한정길 기자



제3기 구례 지역발전혁신협 출범

구례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제3기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총 9개의 군·읍면협의회가 본격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제2기 협의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김순호 군수는 지난 달 8개 읍면지역을 순회하며 협의회 위원 160명을 위촉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을 가진 군 협의회는 구례군의회 대표 의원과 민간 위원, 읍면 지역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김영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년 임기 동안 구례군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구례=손석봉 기자